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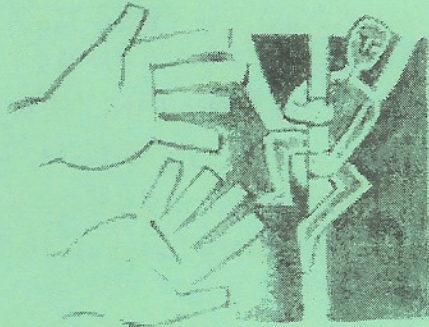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1주일 (위령성월)
 제27권 49호 (다해) 2007.11.4

[묵상]



이불

고단하고 지친 몸을 쉬려고
 큰 바위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더니
 바위가 이불처럼 나를 포근히 감싸 주어
 깨어나 물으니 실은 바위가 나를 선택하여
 이불이 되어 주었다 하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월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레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테훈 아오스딩 김풍길 바오로, 조지 가보라, 이병찬 안토니오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이엔젤라
주일 낮미사	(연)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이규형 곤잘레스, 이은완 야고보, 정환순 요셉 강운용 요셉, 강용길, 김두철, 최복덕마리아, 켄트 매스틱 조명길 루시아와 서진경 안드레아, 박순용 요안나
	(생) 박계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이정훈 안셀모와 도미니카 대건 안드레아 가정 이종민 요셉, 권아그네스, 강유정, 석순영, 김다두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김충섭 마틴, 배기엽 클레멘스, 장영우 엘리사벳 김희미 데레사,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구마리아네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지혜서(Wisdom) 11,22-12,2
화답송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이름 기리오리다. <전례성가 93. 연중 제31주일 다해>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높이 기리오리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일체 당신의 조물들이 주여 당신을 찬미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당신 나라 영광을 들어 말하며 당신의 능하심을 일컫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마다 진실하시며 하시는 일마다 자애로우시니이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 붙드시고 억눌린 사람이면 일으켜 주시나이다.◎
제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1,11-2,2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도다.◎
복음	루카(Luke) 19,1-10
영성제송	주님, 저에게 생명을 길을 가르치시니, 주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6	253
봉헌	269	257,220
성체	283	280,308
파견	211	346

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 예수님의 추종자들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업적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 갔다. 대부분이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로서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측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죄인들도 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가운데 열두 사람을 제자로 삼아 당신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셨다. 열두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마태오와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와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행적을 직접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지만,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지는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문이나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 그 구원은 단순한 현세적 만족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악의 뿌리인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현실적 기대를 채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 예수님의 반대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주님으로 섬기며 추종한 반면에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반대자들은 대부분이 백성의 지도자급인 원로들, 사제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로서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었다. 나중에는 로마제국 전체가 이에 가세하게 된다.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과 성전 운영을 정면으로 논박하셨고,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질타하셨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감독자들을 파견하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함으로써 가장 큰 죄악인 하느님 모독죄를 저질렀다.' 는 구실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으며,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산(골고타)이라는 언덕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계속 - CBCK 제공)

회개의 증거는 착한 행실

몇년 전 꾸르실료 지도를 하고 난 후 수료생들이 한 달 만에 모였다. 그 중에 나이 지긋한 한 자매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피정중에 깊이 묵상을 했다고 한다. '무엇을 해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피정이 끝나는 날 집으로 돌아가면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를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자신과 며느리와의 사이는 겉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그 자매는 아침에 출근하는 며느리의 구두를 닦아 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눈이 촉촉이 젖었다. 그 순간 이십여 년 동안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 자매는 무척 놀라운 체험을 했다. 며느리가 마치 딸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사랑의 힘이란 놀라운 것이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관장 자캐오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캐오는 죄인들과 세리들도 환영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자캐오

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데 장애물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

재물이나 명예욕, 때로는 이기심이 많은 내 자신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닐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캐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신다. 사실 자캐오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무척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캐오는 예수님과 만남이 너무 기뻐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자캐오는 고마움과 감격에 벅차서 이야기한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짓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루카 19,8). 정말 대단한 변화가 아닌가. 자캐오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 속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행위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변화할 수 있었다. 자캐오도 예수님과 만남에서 처음에 변화되지 않았다. 자캐오가 주님과 사귀면서 변화되었음을 묵상해 보자.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델	권순길 체칠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차헌금(매월 첫째 주일)이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1,135단 ☞ 총 합계: 210,341단

-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 한경숙 안나(PHN, NP 자격) 자매가 독감철에 LA카운터 헬스 서비스 번역당국에 요청하여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 일시: 11월 11일(주일) 아침/낮 미사 후, 친교장
 - 대상: 7세부터~, 계란 흰자위 알러지 없는 분들
 - 문의: 사회복지분과 ☎ 310-755-1631

 ☆ 11월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학자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도 "눈물을 즐기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 못은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11월 10일(토) 오후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Main Chaple
 ● 주소: 5835 W. Slauson Ave. Culver City
 ☆*****

- ◆ 중고 휴대폰 수집 캠페인
 -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수집합니다.
 - ☎ 310-408-3175(천광락 야고보)
 - ☎ 213-435-1600(김우용 시몬)
- ◆ 이웃에게 전교합니다.
 - 복음화분과에서는 가톨릭 교리교육을 거쳐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 323-774-2004 홍석철 모세 복음화분과위원장

- ◆ 레지오 마리아 주회 시작
 - 순교자의 모후 Pr. : 수요일 오후 8시(자매)
 - 바다의 별 Pr. : 수요일 오후 8시(형제)
 - ※ 앞으로 두달 후 헌서식을 통해 레지오가 정식 창단됩니다.

-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 ◆ 안나회/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11월 6일(화)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출발
 - 장소: Lake Elsinore Hot Spring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310-944-2737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 4일 : M.E. 부부들이 기금마련을 위해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빈대떡, 국밥, 족발, 닭발, 도토리묵, ... 등등, 미사 후 친교장에서 마음껏 즐기세요.
(국밥 \$3, 각 접시당 \$5)
 - 11월 11일 : 토런스 서 1반 (김치찌개 \$3)

- ◆ 주일학교 청소년부 찬미의 밤(Praise Night)
 - 일시: 11월 10일(토) 오후 7시 미사 시작~밤 10시까지
 - 장소: 백삼위 분당 성전
 - 대상: 남가주 전 한인 가톨릭 청소년(7학년~12학년)

- ◆ Homeless People 돕기 두번째 행사
 - 일시: 11월11일(둘째주일) 오후 5시30분
 - 장소: 롱비치 Project Achieve Center
 - 이발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기다립니다
☎ 310-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강인모	강지혜	고천용	김광자
	김대우	김재연	김정웅	김태호	박광자	박동수
	박인식	박종열	안태갑	오진희	오현희	유경자
	이기성	이병우	이석진	이재정	임연조	임종택
	정기은	정인식	조소영	조영희	차인수	최수나
	최수복	하정화	홍석철	황지영	박제이콥	
	합계 : \$3,510					
	미사헌금 : \$2,613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김대우	김재연	김태호	박광자
	박동수	박인식	박종열	손춘화	유경자	이기성
	이병우	이재정	임종택	정기은	조영희	차인수
	최수나	최수복	하정화	홍석철	황지영	
	합계 : \$2,550					

공지사항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구독신청 받습니다.
 동북부 사제협의회가 발행하는 미국내 유일한 한국어 가톨릭 신앙지(월간)입니다. 영성지를 읽는 기쁨을 누리고, 또 성탄을 앞두고 지인들과 이웃에게 선물하세요. 한영국 올리아나 주간 이 홍보차 우리 본당에 왔습니다.
 ● 홍보 및 구독접수: 11월3일~4일 미사 후
 ● 구독료: 연 \$70 ☎ 917-301-6999

남가주 소식

- ◆ 성삼한인천주교회 은혜의 밤
 - 11월9일(금) 오후 6시~10시, 10일(토) 오후 3시~10시
 - 주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대살5,18)
 - 성삼한인천주교회, 1230 N. San Fernando Rd. 글렌데일
 - 강사 박효철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 626-437-6313 기도회장 정원자 마리아
- ◆ 2007년 가을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각 20명
 -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2008년 신입생 모집
 - 대상: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교과내용: 성경 및 신학 일반
 -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2007년 11월12일(월)~2008년 2월 15일(금)
 - 가톨릭 교리신학원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 ◆ 제 26회 추수감사절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1부 미사: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파크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 2부 행사: 각 본당 대항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가장행렬: 성서에 바탕을 둔 내용이면 됨
 - 줄다리기: 참가인원 20명(남성15명, 여성5명)
 - 신청마감: 10월30일(화) Fax 818-242-4322
 - 주관: 성 마태오한인천주교회 ☎ 818-242-4377
- ◆ 꽃동네 제2차 구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2시~ 9일 오후 1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200
 - 신청: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관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명자 대레사 328-0847 11/9(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박선화 안나 325-3888 11/10(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1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종택 베르나르도 542-5517 11/3(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아 798-6540	조은아 올리아나 533-02??? 11/13(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박명자 마가렛 326-5867 11/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코보 214-2290 11/9(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1/9(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병우 마리노 891-3315 11/10(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12/1(토)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1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11/14(수) 오전 10시30분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용서를 위한 기도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이를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응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주십시오.

언제나 용서에 더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해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수녀, 이해인 클라우디아